

## His Face Like Mine

Russell Joyce

June 30, 2024

그의 얼굴은 나와 같아 러셀 조이스 2024년 6월 30일

### 1. Salvation - 11 year old, Dec 17, 1999 (Baptist make you memorize that day)

#### a. Did I understand? Yes...no...

i. Jesus was special ... 'zoo one...bull & lion (it's an ox)'

ii. Cross was the turning point

iii. 11 is not totally aware of sin, aware that Jesus isn't normal

구원 - 11살, 1999년 12월 17일 (침례교는 그날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해했나요? 네...

아니요... 예수님은 특별했어요... '동물원 하나... 황소와 사자 (그건 황소예요)' 십자가가 전환점이었어요 11살은 죄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 2. Been in Abraham material all year (12-23)

#### a. 'father of faith'

i.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ii. **Kid – Faith as grand gestures** (cross the red sea, walk around Jericho, a leper coming to Jesus) ... **Gen 22 is such a moment**

#### b. Context – **God promised to multiply Abraham** (land, descendants, name)

i. **subtraction** (leave your homeland, clan, father's house)

ii. **division** (Lot & shepherds, Abimelech & Egypt's king)

iii. **addition** (one day of obedience after the next)

iv. month after month of '**enduring trust**'

#### c. Faith may be a big risk...but **faith definitely is holding to God's promises when nothing seems to be happening (or all the wrong things)**

i. in Gen 16...**no sign of multiplication of blessing**

#### d. As a teenager ... **lived experience differed from 11 year old loved by Jesus**

i. I had Goldenhar syndrome...countless surgeries

ii. Constantly being stared at (averted eyes)

iii. Spin the bottle, landed on me, 'ew and ran off laughing'

iv. Jesus' eyes kind ... love, purpose, call ... did he not tell anyone else?

v. **Anyone else?**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빠져있던 한 해 (12-23) '믿음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믿음이란 큰 제스처로 느껴집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 여리고를 도는 것, 예수님께 나아오는 문둥병자) ... 창세기 22장이 그런 순간입니다. 배경 -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땅, 후손, 이름) 감소 (고향, 친족,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 분열 (롯과 목자들, 아비멜렉과 이집트 왕) 추가 (하루하루의 순종) 달마다 '인내하는 신뢰' 믿음은 큰 위험일 수 있지만... 믿음은 확실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또는 모든 일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축복의 번성의 징조가 없습니다. 십대 때... 예수님께 사랑받는 11살 아이와는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골덴하르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수술 항상 쳐다보는 사람들 (외면하는 눈) 병뚜껑 돌리기, 나에게 멈췄을 때, '으, 그리고 웃으며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친절했습니다... 사랑, 목적, 부름 ... 그분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았나요? 다른 사람은 없었나요?

### 3. Genesis 16:1-4, 6

a. "Now Sarai, Abram's wife, bore him no children. She had an Egyptian slave-girl whose name was Hagar, <sup>2</sup> and Sarai said to Abram, "You see that the LORD has prevented me from bearing children; go in to my slave-girl; it may be that I shall obtain children by her." And Abram listened to the voice of Sarai. <sup>3</sup> So, after Abram had lived ten years in the land of Canaan, Sarai, Abram's wife, took Hagar the Egyptian, her slave-girl, and gave her to her husband Abram as a wife. <sup>4</sup> He went in to Hagar, and she conceived... Then Sarai dealt harshly with her, and she ran away from her." Genesis 16:1-4,6 사래는 아브람의 아내였으나 그에게 자식을 낳아주지 못하였다. 그녀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 여종이 있었다. **2** 사래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여보, 주님께서 내게 자식을 낳아주지 않으시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십시오. 혹시 내가 그녀를 통해 자식을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브람은 사래의 말을 들었다. **3**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년 후, 사래는 자신의 이집트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 아브람에게 아내로 주었다. **4**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자 그녀는 임신하였다... **6** 그 후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그녀를 피하여 도망쳤다." (창세기 16:1-4, 6)

i. **Sarai gets a bad rap** – normal ancient response to childlessness!

... 10 years waiting on God (120 mos) – **throw first stone?**

사래는 부당한 평가를 받습니다 – 고대 사회에서 불임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 하나님을 기다린 지 **10년 (120개월)** – 첫

번째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b. **Problem with Sarai's approach** – God already said how he was going to

do it 사래의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하실지 말씀하셨습니다

i. **Genesis 15**

1. God dbled down on promise of child in Sarai (look at stars...)

2. Formed a covenant – fire passed through animals alone!

3. **Through Sarai ... and through my power alone**

창세기 15장

하나님은 사래를 통해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확고히

하셨습니다 (별을 보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

불이 홀로 짐승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사래를 통해 ...

그리고 내 능력만으로

ii. Author drawing parallels to a previous story (Gen 3)

1. "Sarai took Hagar...gave her to husband... he went in to her."

2. Wife who took something gave it to Adam and he ate it.

3. **Sin are all the ways we try and find life on our own strength/ accomplish God's promises ourselves ... make a mess**

저자는 이전 이야기(창세기 3장)와의 유사점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래가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에게 주었다... 그가

하갈에게 들어갔다." 아담에게 무언가를 주고 그가 먹게 한

아내. 죄란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삶을 찾으려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모든 방법들입니다 ... 엉망이

됩니다.

- c. 11 year old me Jesus revealed love and said I had a purpose 11살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내가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i. I felt alone, ugly, unwanted 혼자 있는 것처럼 느꼈고, 못한 것 같고, 원치 않는 존재였습니다.
    - 1. **I made my own way – pornography; work ethic** (7<sup>th</sup> grade waking my dad up ... winners receive love, purpose); **religion** (Maybe if I become holy, morally perfect and **PRAISED** for it) 제 길을 만들었습니다 – 근면성실 (7학년 때 아버지를 깨워... 승자는 사랑과 목적을 받습니다); 종교 (어쩌면 저가 거룩해지고,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면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 ii. **Caught in the crossfires is Hagar ...that part of us runs away (pushes down, don't want to look)** 하갈이 십자포로 갇힌 것입니다 ... 우리 안의 그 부분은 도망갑니다 (억누르고, 보지 않으려 합니다)
    - 1. School photos – 6<sup>th</sup> grade, tic...**turning my face away**
  - iii. We're content with a life & world where **parts are lost**...우리는 잃어버린 부분이 있는 삶과 세상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4. Gen 16:7-8, "The angel of the LORD found her by a spring of water in the wilderness, the spring on the way to Shur. <sup>8</sup>And he said, "Hagar, slave-girl of Sarai, where have you come from and where are you going?" 창세기 16:7-8, "여호와와 그의 사자가 광야 길 어귀에 있는 물 샘 곁에서 그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되, '하갈아, 너는 사래의 여종이로구나.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 a. Only time she's called by her name **Hagar** (slave girl of sarai, wife of abram)
  - i. Look at your deep pain/wounds/abuse/sin – “minimize, overspiritualize, rationalize, medicate, deny, blame (others, oneself) ... **God calls it by its name**
- b. "I will so greatly **multiply** your offspring that they cannot be counted..." v10
  - i. Hagar – I see you. I see the pain...**I will bless you & multiply good from it**
- c. **Great pain/sin in your life**...abuse, rejection, betrayal, addiction, neglect, all the consequences/rage/fruit of this sinful world

- i. you don't want to listen, push it down, medicate, rationalize, deny, blame, overspiritualize, **let it run away into the desert to die...**
  - ii. **GOD – I see you. I call you by your whole name. promise that what was intended for evil will not only not be accomplished, but will be multiplied for good**
- d. I was 16...Big One
  - i. Awoke in an empty room, face pounding, soul crying, more alone, uglier, more broken than I'd ever felt in my life
  - ii. 'Jesus, where are you?'
  - iii. A wind came over my flesh, entered my body, touched my soul...Knowledge 'I'm here. I'm with you. I love you. You are the most beautiful son I've ever son and I've chosen you for myself.'

**a.** 하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유일한 순간 (사래의 여종, 아브람의 아내)

네 깊은 고통/상처/학대/죄를 바라봐 – "알추기, 영적으로 과대해석하기, 합리화하기, 마취시키기, 부정하기, (타인, 자신에게) 죄를 돌리기 ... 하나님은 그것을 그 이름으로 부릅니다.

**B.** "너의 후손을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그들을 세어보지 못할 만큼 ..." **v10** 하갈 – 나는 너를 본다. 네 고통을 본다...내가 너를 축복하고 그로부터 좋은 것을 번성하게 하리라

**C.** 네 삶에 큰 고통/죄...학대, 거부, 배신, 중독, 방치, 이 최악의 세상의 모든 결과/분노/결과 너는 듣고 싶지 않아하며, 억누르고, 마취시키며, 합리화하며, 부정하며, 타인, 자신에게 죄를 돌리고, 영적으로 과대해석하여 사막으로 도망가 죽을 수 있게 했다

...

하나님 – 나는 너를 본다. 나는 너의 전체 이름으로 너를 부른다. 악에서 의도한 것이 단지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좋은 일에 대해 더욱 번성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D.** 나는 **16살**이었을 때...큰 시련 빈 방에서 깨어나 얼굴이 아프고, 영혼이 울부짖고, 내 인생에서 더 외롭고, 더 못생기고, 더 망가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바람이 내 살을 넘어서고, 내 몸에 들어와 내 영혼을 만졌습니다...'내가 여기 있어.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내가 본 적이 있는 가장 아름다운 아들이며, 나는 나를 위해 너를 택했다.'

5. <sup>13</sup> So she named the LORD who spoke to her, "You are El-roi"; for she said, "Have I really seen God and remained alive after seeing him?" <sup>14</sup> Therefore the well was called

Beer-lahai-roi; it lies between Kadesh and Bered." Gen 16:13-14 창세기 16:13-14,

"그래서 하갈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을 보았노라 하여 여호와를

'엘로이(나를 보셨느냐)'라 부르니 그녀가 말하였으니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뵈은  
 고로 내가 이제 어찌하여 살아 있으리요. 14 이러므로 그 샘 이름을 베엘라해로이라  
 불렀으니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음이라."

a. Chiasm – X –drills down to the center and opens back where it started ...

**Abraham's material is chiastic**

- i. **(James Jordan) - Center of Abraham's story is Hagar!**
- ii. God chases into desert & center of sin and shame, the forgotten, overlooked parts of us that we just want to let die and says NO
  - 1. **Christianity is the story of a God who refuses to let any part of your life be forgotten or die**
  - 2. **Center of your story** - most important parts of what he's doing in your life is found in desert places you don't want to look

a.카이아스문(**Chiastic**) – X형 – 중심으로 파고들어 시작한 곳으로 되돌아옵니다 ...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카이아스문입니다 (**James Jordan**) - 아브라함 이야기의 중심은 하갈입니다! 하나님은 사막으로 추격하며, 죄와 수치의 중심, 우리가 잊고 지나치려는 부분을 거부하고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어떤 부분도 잊히게 하거나 죽게 두지 않기를 거부합니다 당신 이야기의 중심 -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이 보고 싶지 않는 사막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b. Not just God naming us...so she named the Lord, 'you are el roi'

- i. Only person in the Bible to give God a name is abused slave-girl Hagar ... **what did she see?!**
- ii. **El Roi – God who sees ... God who sees ME**
  - 1. **A lot of gods see. Christianity reveals a God who sees me.**
  - 2. A lot of Gods are general gods...we serve personal God who came in flesh, entered our sin, died on cross...
  - 3. **Angel of the Lord ... El Roi?** - pre-incarnate Jesus chasing Hagar into the desert & meeting in center of her & Abraham's sin and pain
  - 4. **you want to see God?** – not in moments of strength but on cross, places of deepest wounds, shame ... **'your name Jesus'**

b.단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갈이 여호와를 '너는 엘로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른 유일한 사람은 학대받은 여종 하갈입니다 ... 그녀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엘로이 – 나를 보시는 하나님 ... 나를 보시는 하나님 많은 신이 보지만. 기독교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많은 신들은 일반적인 신들입니다...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우리의 죄에 들어가신, 십자가에 죽으신 개인적인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호와와 사자 ... 엘로이? - 전육신  
예수가 사막으로 추격하여 하갈을 만나 아브라함과 그녀의 죄와 고통의 중심에서 만난 것  
당신은 하나님을 보고 싶나요? – 힘든 순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가장 깊은 상처와 수치의 장소에서 ... '당신의 이름 예수'

**c. 16...Big One...Jesus entered the room**

- i. Turning my face away...grabbed it with both hands 'you look at me! there he is. I see you. I adore you. I choose you.'
- ii. **When we're face to face, not just God sees me...I see you**
- iii. I see God...his name is Jesus
  1. to be in excruciating pain
  2. Stared at in disgust and shame
  3. People to shout ew and run away laughing
  4. Abandoned by your closest friends and family
  5. Feel ugly and alone and forgotten
- iv. **Jesus on the cross ... you are El Roi ...God who sees me (me I don't want to see)**

**c.16**살 때...큰 일... 예수님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내 얼굴을 돌리자 ... 양 손으로 잡고 '당신은 나를 쳐다보세요! 거기 계시다. 나는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숭배합니다. 나는 당신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마주 보았을 때, 단지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본다 나는 하나님을 본다... 그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역겨움과 수치 속에서 노려볼 때 사람들이 '흥'하고 웃으며 도망치도록 쳐다봤을 때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가족에게 버림받았을 때 못생기고 외롭고 잊혀진 느낌이 들 때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 ... 당신은 엘로이 ...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내가 보기 싫은 나를)

**d. His Face like Mine** tells the story of all the ways our souls don't want to be **seen**, parts of us cast out in desert in **shame** hoping to be **forgotten** and die...but God who chases, sees, names, blesses, **who we must meet there (that is where we meet Jesus)**

- i. John 4 (Jesus meets a Samaritan woman at a well at the bottom of social ladder who does not want to be seen) .. reveals identity her first

**"His Face Like Mine"**는 우리 영혼이 보이기를 원치 않는 모든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부분들이 수치 속에서 사막에 쫓겨 나가 잊혀지고 죽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쫓아가시고 보시며 이름 짓고 축복하시는 분, 우리는 그곳에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곳이 예수를 만나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와 우물에서  
만나 최하층 사회에서 보이기를 원치 않는 여자) ... 그녀의 정체를 먼저 드러냅니다.

**e. Invite us to let God turn our faces toward him today...to be seen & to see**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그분에게로 향하게 하도록 초대합니다... 보여지고  
보기를 허락하시기를